

작품 개요

「국화 옆에서」는 작곡자가 63세 때인 1985년 9월 6일 서정주(徐廷柱, 1915~2000)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이다.

작품 해설

이 곡은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서정주의 시 「국화 옆에서」를 가사로 하여 씌어진 작품으로 그의 가곡 작품 중 가장 나중에 쓰여진 곡이기도 하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후반부의 작품들이 대개 그러하듯 반주부의 선율이나 화성의 취급은 매우 정갈하고 단순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화성의 기본적인 골격은 4도화성의 병행기법으로서 공명의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악풍을 살리기 위해 주로 쓰였던 부가 화음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 초기 작품에서 음악성을 돋보이기 위하여 그대로 중복하거나 약간의 장식은 가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도 선율선의 윤곽은 원조인 Am의 음계에 충실하면서 반음계적인 색채를 첨가하는 지극히 서양 낭만풍의 움직임의 구사한다. 형식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주로 클라이막스를 설정했던 중간부분에서도 선율의 극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솔(G)을 정점으로 하여 장식적인 리듬과 함께 차분히 순차하행하는 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어서 독창적인 화성의 변화를 개성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초기 작품들과는 상대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 이창자, 나운영의 가곡 작품의 유형별 분석, 음악과 민족 제9호, 민족음악연구소 중에서 -

메트로놈 3/8 곡 린의 노래

시 작곡 25년
1940년 2월 25일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first system, including treble and bass clef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like *f*.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second system, including lyrics: 한 송이 꽃잎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꿉사레는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third system, including lyrics: 그리고 봄바람이 한 송이 꽃잎을 피우기 위해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fourth system, including lyrics: 한 송이 꽃잎을 피우기 위해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fifth system, including lyrics: 한 송이 꽃잎을 피우기 위해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sixth system, including lyrics: 한 송이 꽃잎을 피우기 위해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seventh system, including lyrics: 한 송이 꽃잎을 피우기 위해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eighth system, including lyrics: 한 송이 꽃잎을 피우기 위해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ninth system, including lyrics: 한 송이 꽃잎을 피우기 위해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tenth system, including lyrics: 한 송이 꽃잎을 피우기 위해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eleventh system, including lyrics: 한 송이 꽃잎을 피우기 위해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twelfth system, including lyrics: 한 송이 꽃잎을 피우기 위해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thirteenth system, including lyrics: 한 송이 꽃잎을 피우기 위해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fourteenth system, including lyrics: 한 송이 꽃잎을 피우기 위해